

보도일시	2025. 05. 27. (화요일)		
위원회명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위원장
담당자	이우형 비서관 / 02-784-6450	E-mail	wishjeju@daum.net

민주당 기후위-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위성곤·위진, 이하 ‘기후위’)는 27일(화),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와 함께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기후위 위성곤·위진 위원장과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강호열 공동대표, 임성희·임의자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지속 가능한 국토 이용 및 개발 의사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기후위기 시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 제도가 더 이상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이 생명과 환경을 우선하도록 전환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단지 문서 한 장으로 끝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자 헌법적 책임”이라며,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해 환경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기후위와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는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 및 객관성 강화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 알권리 보장 ▲환경영향평가의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 강화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끝/



<사진> 2025. 05. 27. 기후위기대응위원회-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정책협약식